

제8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10일 (화) 10시 3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 충청광역연합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초광역자치과 소관
  - 초광역산업문화과 소관

상정된 안건

- 2026년 충청광역연합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초광역자치과 소관 ..... 1면
  - 초광역산업문화과 소관 ..... 1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충청광역연합 초광역자치과 및 초광역산업문화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초광역자치과 소관
- 초광역산업문화과 소관

(10시 31분)

○ **위원장 김선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우 연합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자로 연합사무처장으로 온 이경우입니다. 세종시청에서 나왔습니다.

간부공무원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임은영 초광역자치과장입니다.

(인사)

김민희 초광역산업문화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과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광역연합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대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3쪽 2025년도 주요성과 평가, 6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충청권 상생발전 체계 구축 및 초광역 협력 고도화입니다.

충청권 공동현안 대응을 위해 협의기구를 활성화하고, 대전·충남 통합 추이에 따른 변화의 연구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0월 착수한 충청권 지역화폐 발행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지방시대엑스포에 참가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등 맞춤형 안건을 발굴하고, 연합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및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 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합사무처와 연합의회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 추진력 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 및 국제교류 강화입니다.

매체별 언론보도를 확대하고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홍보하며, 다양한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정책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25년도 일정 조정의 어려움으로 미추진되었던 일본 간사이연합과 우호 협력을 추진하고, 신규 교류 국가도 발굴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정운용 및 회계행정 신뢰 구현입니다.

예산편성 및 결산 관련 재정공시를 적기 이행하고, 성과예산을 운용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책임성 있는 회계를 실현하겠습니다.

11쪽, 국가 균형성장 정책 대응 및 지역인재 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 대응을 위해 중부권 성장엔진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충청권 산업 경기 동향을 수집하여 분석 보고서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 등 지역인재 유치를 위해 충청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공조체계 구축입니다.

미래차 산업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부품 시제품 개발 및 특허 등록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충청권 전략산업 바이오 인재 양성은 배양·정제·품질관리를 주 교육 항목으로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4개 시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충청권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권 경제 상생발전 및 기업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미래경제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해외 주요기관 등 대외 협력을 강화해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충청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입니다.

충청권 생활문화축제 개최를 하고, 문화정책 협업 네트워크 운영을 생활문화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을 통해서 충청권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 광역투어패스는 가맹점 추가발굴, 상품 다양화, 홍보 강화, 판매량 확대 등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지방시대엑스포 참가입니다.

'26년 10월부터 11월 중 개최되고,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저희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충청권 미래차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부품 시제품 개발 및 특허 등록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 TP나 지역산업진흥원, 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업 맞춤형 첨단바이오 인재 양성입니다.

배양·정제·품질관리를 주 교육 항목으로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케이바이오재단 또는 폴리텍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초광역자치과 및 초광역산업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제1차 본회의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선광 이경우 연합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사무처장님, 축하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1년 동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했고 5분 발언들을 진행했었는데요, 피드백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어떻게 주실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의원님들 중에서 5분 발언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 1년 동안에 진행했던 상황들을 가지고 공론화시키려고 했던 것들도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 저희들이 발언하고 난 후에 어떤 피드백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와야 서로 그다음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에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셨던 게 정확한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해 나갈 건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광** 지금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요구 관련된 걸 말씀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집행부 사무처장님부터 시작해서 앞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속기록을 아마 찾아보시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 파악하셔서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하셨던 부분들이나 발언하신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거 같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참고하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선광**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예, 김현미 위원님.

○ **김현미 위원** 자료요구보다는 하나만 좀 여쭙보겠습니다.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장님이 알고 계신지, 아니면 그 자료가 자료화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에 연합의회에서 공무원 파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각 시도 지자체에서 함께 고민해서 의회 공무원 파견수당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1년마다 직원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결국 이 안에 오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떠한 혜택도 못 받는다고 하면 다시 복귀하려고 하시겠지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연합의회 공무원 파견수당 지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파견수당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우선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자료화시켜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그 사항은 오자마자 말씀을…… 자료를 본 건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행안부 쪽에다가 질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 충청광역연합이라는 기관 자체가 공공기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행안부에서는 협의적으로 좁게 해석하다 보니까 일단 공공기관에 안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파견수당은 안 된다, 이렇게 문서로 온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액션이 나간 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행안부 쪽이랑 컨택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사항은 서면이나 아니면 따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시면,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하에 기준 경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시도가 기준을 정해 주시면, 추경에 세우시면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을 세우는 문제고, 일단 충청광역연합이라는 기관의 성격, 그게 아직 불명확합니다, 행안부 쪽하고. 제가 문서로 읽어본 제 판단에 의하면.

그래서 이 기관의 성격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를 먼저 확정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없었던 신설 조항이라는 말이에요, 2026년도에. 거기에는 정확하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행안부에서의 어떤 재정적인 이외에도 4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는 일하시는 인력 구조에 있는 직원들이 탄탄하고 본인들이 이 안에서 조직의 공정성이라든지 분배성에 있어서 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충청광역연합이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2026년도에 이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 행·재정적인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의 예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자체 간에는 협의가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가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계약이 끝나서 나가더라도 공무원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잔류하면서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신영호 위원** 이경우 처장님, 임은영 과장님, 김민희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고, 배석하신 공무원분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노금식 의장님하고 오사카 간사이연합과 간사이의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거는 지금 주신 업무보고에 충청권 공동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고도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안입니다.

그 당시에요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던 거는 간사이의회도 순회해서 회의가 열리더라고요, 간사이의회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도 순회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충북-충남-대전-세종 순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산업문화니까 관련된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충북의 현안은 무엇이고, 대전의 현안은 무엇이고, 세종의 현안은 무엇이고, 충남 현안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행안부하고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법령이 없는데.

우리가 확대 해석 해서 갈 수는 없겠지요? 안 가본 길이니깐.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그러니까 공공기관 법률은 기재부 거고, 그다음에 우리 수당이라든지 이거는 행안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아까 김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26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니깐 그게 어떻게, 어떤 상황까지 파급효과가 있는지까지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데, 일단 제가 실무자 쪽하고 얘기를 해 보고 상황부터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 역할이 더 크죠.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역할은 저희가 더 큰데, 모쪼록 지속되는 문제 제기인데 이거는 저희들의 현안사업이

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많이들 잘해 주셨네요. 신규도 많이 담아 주셨고 계속사업도 잘 분석해서 넣어주셨는데, 작년에 충청권 청년농부 네트워크 구축이 있었어요. 워크숍을 한 번 개최했거든요, 세종에서 11월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셨을 것 같고 저는 갔다 왔는데, 다시 한 번 더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연수나 현장, 세종에서도 연수를 했지만 현장 쪽에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도 다 같이 있었고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마 관심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신영호 위원** 바이오가 들어갔네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신영호 위원** 이 바이오는 어떤 개념으로 하신 거예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바이오를 하는 인재 육성이 약간의 전문가 스타일, 교수라든지 전문가 스타일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건 실무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기에 관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신영호 위원** 죄송한데, 의료 바이오?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양이라든지 정제, 품질관리 이런 쪽으로…….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의료 바이오?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제약입니다.

○**신영호 위원** 아, 제약.

사실상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해양 바이오도 있고 그린 바이오도 있고 그래서 혼선이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의료 바이오라는 거지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신영호 위원** 예, 잘하셨고, 다만 이 바이오가 우리 충청권에서는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아직은 부족합니다.

해양 바이오도 부족하고 그린 바이오, 농생명 바이오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바이오 영역을 크게 판을 키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은 사실상 타깃을 작게 잡으면 작게 잡을 수 있고,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 수 있는데, 어차피 주 타깃은 4개 시도에서 잡기 때문에 연합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킹.

우리 연합에서 만약에 바이오를 한다고 그러면 바이오의 전문적인 기업인들을 모

시고 4개 시도가 모이는 자리, 이런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육성을 하고 양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바이오·모빌리티……, 모빌리티도 역시 충남도 있고 세종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런데 모빌리티도 굉장히 넓은 권역인데, 어쨌든 실무 협의체 구성하신다니까 잘하시고, 또 우리 연합이 해야 될 역할은 운영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있을 때 어떻게 조율을 해서 어떻게 하면 4개 시도로는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안으로서 사업들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연속성도, 우리 집행부도 거의 1년씩 임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연합이 네트워킹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자치과장님도 계시니까. 연합이 앞으로는 대전과 충남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법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통합이 돼도 연합은 가야 되는 거고요. 통합이 된다고 하면 연합은 간사이처럼 의원수 배정과 예산 배정에 재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제가 스터디를 못 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으로 해서 제가 그쪽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간사이연합도 사실상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쿄부하고 오사카부 2개 큰 도시가 있는 상태에서 현도 끼고 시도 끼다 보니까. 사실 거기도 역사적으로 옛 수도의 중심지라 모이다 보니까 역사·문화적으로 모였는데, 사실 그런 연합의 그런…… 우리도 연합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통합도 아니고 거기도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거기도 지역별로 의원 수하고 예산 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담당하는 업무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광역연합과 위원회에서, 앞으로 만약에 대전·충남이 통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배분과 배정 문제도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경우 처장님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반갑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역 의회에서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여기 오셔서 지고 연합에서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임은영 자치과장님과 김민회 문화과장님도 연합이 생소하기는 하시겠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거죠?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능력 있는 분들이 연합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26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들이 결국은 '2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사실 담겼던 내용들이지요.

'25년도에 '26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사업들을 정리하실 때 그 당시에 정책적·정치적 환경과 지금 보고를 주신 시점의 환경은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요?

사실 업무에 대한 숙지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바뀐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연합의 사무들을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을 막 돌려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전·충남 통합의 화두가, 행정 통합의 문제가 결국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분절적 의미를 가지고 가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 연합의 존치 여부와 연합의 사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사무들이 '26년도에 정상적으로 의도하신 대로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규사업이나 이 많은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최소 한두 개 정도는 강단 있게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25년도에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고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연합의 실체와 연합의 활동내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하는 것들, 전부를 다 풀어가지고 가려는 것보다 집중해서 가는 게 효능성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연합의 존재성 측면에서 좀 더 높지 않을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부분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실 현재 계속 논의 중이니까요, 된다는 전제하에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처장님이 답변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8페이지 보시면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치적 문제가 예민한 거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언론에서도 그 질의는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거에 따라 저희 내부적으로, 연합장님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4개 단체장님들과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것을 공론화를 시킨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처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물론 이게 칼로 두부 베듯이 딱 잘라서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파견을 오시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소속은 연합 소속이신 거예요.

4개 시도의 상황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행정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광역 시도의 입장과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해서가지고 판단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연합에서 연합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현 자체는 자제할 수 있어요. 순화해서 표현하실 수 있고 완만하게 표현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고 자체는 연합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하시고 연합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죠? 여기가 공공기관인지, 협의 기관인지, 협조 기관인지 정부가 잘 모르고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지 협동조합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단체의 성격조차도 구성원이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계시지 못하시면 저희 이렇게 와가지고 활동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지고 고민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통합 논의 과정 속에 사실은 충청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는 전혀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이야기가 거의 되어 있지 않거든요. 존재 가치에 대해서 서로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 계륵 같은 느낌,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충청권에는 어쨌든 연합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외부로 노출시켜 주시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미 위원** 처장님, 16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보면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통정책도 고도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위원님, 그거는 내일…….

○ **김현미 위원** 예, 그런데 여쭙보고 싶은 게 이 주제의 답변을 얻고 싶은 게 아니고, 2025년도 3월에 조성태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충북·대전·세종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도권이나 전철 등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매번 제시해야 하고 보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내일 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혹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충청광역연합의회나 연합이 생활권 그리고 행정권을 넘어서서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결국은 한 시도에서만 할 수 없는 것들을 행정권역을 넘어서 함께 하자라는 취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암통합지지센터, 의료를 행정권역으로 묶어서 하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것도 진행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내일 하실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발언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보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라든지 같이 홍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기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활권 말고 행정권역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생활권별로 지역마다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라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

○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추진 경과를 내일 보고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이나 속기록에 나온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지금까지 최신의 자료를 내일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 같이 봐야될 게 13페이지에 보시면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도 연계

해서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교통패스권으로 인해서 충청권 안에서는 서로서로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또 연계돼서 각자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산업과 문화 쪽을 달리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들을 분야별로 보시지 말고 관광을 하면서 65세 이상에 대한 교통 아니면 청년에 대한 내일로 같은 교통패스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었을 때 초광역 안에서 관광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경제생활권을 뛰어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사업, 사업대로만 분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각자의 지자체에서 보는 사업처럼 보는 게 아니고 구역을 넘어서서 함께 충청권역이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바라보는 건데, 이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이 탄생한 게 2년차 들어오면서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위에서 봐야지만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밑단에서 올라오면서 사업을 전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 사업 위주로 각 시도마다 하고 그거를 묶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봐도.

저도 여기 왔지만, 여기 생활문화축제라고 하지만 이것도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봤을 때 어떤 이득이 있지? 어떤 장점이 있지? 어떤 단점이 있지?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이 사업이 거기서부터 뭔가가 문제점이 있고, 거기서부터 장점·단점 이런 걸 보면서 위에서 보는 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분절적으로 ‘사업, 사업, 행사’ 이런 형태로만 가다 보니까, 만약에 1개 자치단체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나머지 3개 단체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김현미 위원** 앞에 있는 말하고 연계됩니다.

결국은 여기 파견 오신 분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지역과 관련해서 과제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조직에서의 자기 공정성, 분배성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 의원님들 16명이 세종은 가깝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은 자기 시간 쪼개서 자기가 직접 그래도 초대의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데요. 이 사업조차도 아니면 연계성조차도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앉아 있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연합에 있는 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합이라는 조직 안에서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온 지자체에서의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 다 지자체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안에 행정권을 넘어서 같이 통합하자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분절돼서 보이면 안 된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통합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경우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처장님 많이 혼란스러우시지요?

오셔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충청광역연합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보니까 물환경 관리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도시 생태 네트워크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광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수계 물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 충청권을 다 아우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류에서 잘못되면 하류가 망가지듯이 같이 연계성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중간중간 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환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그게 앞으로 국가 발전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계획들이 없었나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지금 분절적으로 세종만 해도 금강 수변에 재자연화 사업 이런 것을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계속적으로 추진은 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 안개 문

제도 있었고.

그렇게 조금씩은 했는데 이게 전 4개 시도가 공히 주변을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보니까 22페이지, 23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런 것 같아요. 22페이지는 물환경 관리 모니터링이고, 23페이지는 도시 생태 네트워크 연구 용역.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그 자료가…….

○**안경자 위원** 업무보고 자료.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24페이지, 예.

○**안경자 위원** 달라요? 24페이지네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안경자 위원** 이거를 분리해서 용역을 맡기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했던 금강수 물환경 관리 모니터링 자료를 보니까 이 기본계획하고 네트워크에 설명되어 있는 생태계 현황, 경제성, 복원 대상지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역연합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하신 특별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지?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금강수계는 금강을 주변으로 하는 그게 가장 큰 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있는 도시 생태 네트워크는 금강도 있지만 그 안에 도시에 흐르는 조그만 수변, 강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른 진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은 제가 보완을 해서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어떻게 보면 충청광역연합에서는 이거를 같이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용역이 따로따로 가게 되면 결과도 따로따로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당부말씀입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평**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처장님한테 여쭙게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의 규모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하려면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은 사실 다양성하고는 거리가 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4개 시도에서 일을 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24쪽에 있는

것처럼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면서 다양성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예산 편성한 것 안에서 연구용역으로 별도의, 별건의 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요? 현재.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그거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런 것이 우리 한계에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거가 임박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4개 시도 추경을 할 때 일부 예산을 받아와서 광역연합에 맞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국가 공모가 됐든, 통합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명분을 갖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연합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아시지요?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우리가 간사이연합을 다녀오고서도 사실 느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갔다 와서 작성해놓은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사실 모든 내용이 담겨 있지는 못할 겁니다.

별도의 따로 스터디나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가령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특정 광역시도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업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 1년 경험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추경도 없고 빚도 없고 하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거 지나가는 거 안에서 어떤 사업에 1억을 편성했다고 하면, 해 보니까 몇천 들여서 해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예비비로 다시 빼놓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도전해 본다든지 기획을 해 본다든지 한계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직자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광역연합에 애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에 오늘 여러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광역연합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전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만들어낼 변화와 책임이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새롭게 광역연합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새해의 흔들림 없는 각오와 실천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시기를 기대하며,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와 답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형서 김선광 김현미 신영호 안경자 유인호

#### ○청가 위원(1인)

조성태

####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일호

####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사 무 처 장 이경우

초 광 역 자 치 과 장 임은영

초광역산업문화과장 김민희